



'환상 짜꿍' 이용대-이효정
코리아 오픈 2연패 도전

13일 서울서 슈퍼시리즈 개막
馬聯 오픈전 아쉬운 준우승

“환복복식 최강의 전통을 이어가겠다”

지난 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베드민턴 환복복식의 정상급 스타로 떠오른 이용대-이효정(이상 삼성전기)이 새해 초 안방에서 코리아오픈 2연패에 도전한다.

이용대와 이효정을 비롯한 한국 베드민턴 대표팀은 1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제2체육관에서 시작되는 2009 요넥스코리아베드민턴 슈퍼시리즈에 출전해 종합우승에 도전한다.

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코리아오픈은 세계베드민턴연맹이 지정한 12개의 슈퍼시리즈 중 랭킹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회로 총상금도 30만달러로 가장 많다.

이번 대회는 비록 최강 중국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키

지 않았지만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리츨웨이(말레이시아)와 베이징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 마르키스 키도-헨드라 세티아완(인도네시아) 등을 포함한 22개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6일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일 예정이다.

종합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‘국민 남편’ 이용대-이효정 콤비가 대진 운도 따라 이번이 없는 한 결승까지 무난히 진출,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노바 위디안토-틸리야나 나트시르와 우승을 다툴 전망이다.

이용대는 또 정재성(삼성전기)과 짝을 이룬 남자복식에서도 최근 세계랭킹이 2위까지 상승, 키도-세티아완 조와 결승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이용대-이효정 콤비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‘2009 말레이시아 베드민턴 슈퍼시리즈’ 혼합 복식 결승에서 세트스코어 0-2(14-21 19-21)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. 코리아오픈에서 실력을 다짐하게 됐다. /연합뉴스

“동장군아 물렀거라” 광주 동성고 야구부, 신안 임자도 크기훈련

호남 아마야구의 명맥을 잇고 있는 광주 동성고등학교 야구부가 신안 임자도에 크기훈련을 다녀왔다.

윤여국 감독과 김재택 수석코치, 박지오 투수코치 등 동성고 코칭스태프는 지난 2

일부터 10일까지 26명의 선수들과 함께 신안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훈련을 가졌다.

선수단은 9일간 진행된 훈련에서 산악구보 및 바다훈련을 통해 기추년의

새 각오와 함께 협동심을 다졌다. 또 이번 훈련에는 동성고 출신의 야구 스타 장재근-홍현우가 명예 코치로 참가해 후배들을 격려했다.

윤 감독은 “기추년 새로운 마음가짐을

위해 크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한명의 낙오도 없이 8박9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”며 “이번 훈련을 밀기름으로 전국대회 우승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김여국기자 wool@kwangju.co.kr



LIG 삼각편대, 대한항공 날개 꺾다

카이·이경수·김요한 ‘필필’...대한항공에 3-2 역전승
신협 상무도 ‘꿀찌팀’ KEPCO45에 낙승, 시즌 5승째



LIG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3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쳤다.

LIG손보는 11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계속된 NH 농협 2008~2009 프로배구 V 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대한항공에 3-2(22-25 25-19 25-12 21-25 15-12)로 승리, 8승7패로 상위권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.

지난달 20일 대한항공에 두 세트를 먼저 따

내고도 2-3으로 역전패했던 LIG손보는 이날 아픈 기역도 말끔히 씻어내고 세 번째 대결만에 대한항공에 시즌 첫 승리를 냈었다.

반면 LIG손보의 블로킹과 강서브에 무릎을 꿇은 3위 대한항공은 9승6패로 4위 LIG손보에 1게임차로 쫓긴 채 전반기를 마감했다.

1세트를 대한항공에 내준 LIG손보는 2세트 카이와 김요한이 각각 80%가 넘는 높은 공격 성공률로 15점을 합작, 손쉽게 1-1 균형을 맞췄다.

3세트에서 가로막기 6개로 대한항공 공격진을 무력화한 LIG손보는 이경수가 8점으

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낙승을 예고했으나 4세트에서 중반 집중력이 흐트러져 다시 동점을 허용했다.

문명의 5세트, LIG손보는 이경수의 후위 공격과 카이의 강타로 3-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고 10-6에서 김요한의 서브 에이스로 귀중한 점수를 추가하며 승부를 매조지했다.

한편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신협상무는 KEPCO45를 3-0(26-24 25-14 25-19)으로 완파, 시즌 5승(10패)째를 올렸다.

올 시즌 KEPCO45에 3전 전승을 거두고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등 프로팀을 두 번이나 격파한 신협상무는 4~7라운드에서 삼성세를 이어간다면 2005-2006 시즌 기록한 최다승(10승)도 같아질 수 있게 됐다. /연합뉴스

獨 프로배구 문성민
후반기 개막전 결장

독일 프로배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문성민(22·프리드리히스하펜)이 후반기 첫 경기인 11일(이하 한국시간) VCO 베를린전에 결장했다.

문성민은 지난해 12월28일 시즌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처음으로 결장한 뒤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.

프리드리히스하펜은 이날 후반기 개막전에서 VCO 베를린에 세트스코어 3-0(25-18 25-9 25-21)으로 가볍게 승리했다. 프리드리히스하펜은 이날 승리로 11승2패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계속 달렸다.

문성민은 지난 4일 열린 DVL(독일배구리그) 올스타전에서는 남부 선발로 3세트와 5세트에 교체 출전해 2득점을 올렸다. /연합뉴스



11일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푸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'2009 말레이시아 베드민턴 슈퍼시리즈' 혼합 복식 결승에서 한국의 이효정-이용대 조가 인도네시아의 노바 위디안토(시진 맨 오른쪽)-틸리야나 나트시르 조에 세트스코어 2-0(14-21 19-21)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. /연합뉴스

김동주, 日 진출 접고 두산과 연봉 7억 재계약

프로야구 두산에 잔류하기로 한 김동주(33·시진)가 연봉 7억원에 재계약했다.

두산은 11일 내야수 김동주와 지난해와 같은 7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. 그러나 지난해 작년 연봉 7억원, 옵션 2억원 등 총액 9억원에 도장을 찍은 김동주에게 올해는 옵션을 제시하지 않아 김동주가 손에 쓸 금액은 사실상 삭감됐다.

김동주는 계약 후 해의 진출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고 밝히고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기로 했다.



김동주는 구단을 통해 “그동안 일본 진출 추진과 관련해 선수단, 구단,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할 따름이다. 여러 사정으로 일본 진출이 여

의치 않았고 이제 해의 진출에 대한 미련은 없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시즌을 준비해 우승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 /연합뉴스



원주 동부가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전주 KCC의 가파른 상승세를 잠재우고 6연승을 달렸다.

동부는 11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~2009 동부프로미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웰벳 화이트(31점·3점슛 5

동부, KCC 잡고 6연승 휘파람

개)와 표영민(22점·3점슛 6개)의 활약으로 연장 접전 끝에 KCC를 89-84로 물리쳤다.

이로써 동부는 패조의 6연승 행진으로 2위 울산 모비스와 격차를 2.5게임차로 벌렸다. 동부는 또 지난 3라운드 76-87 패배를 만

났던 KCC에 설욕하며 시즌 상대전적 3승1패의 우위를 지켰다.

반면 3연승을 달렸던 KCC는 기세가 한풀 꺾였고 공동 6위 도약과 5할 승률 달성에 실패했다. /연합뉴스



12일(월)
▲08/09 NFL AFC 디비전 P.O (샌디에고 : 피츠버그)(06 : 40·SBS스포츠)
▲2009 PGA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FR (08 : 00·SBS골프), (10 : 00·SBS스포츠)
▲08/09 여자프로농구 (우리은행 : 삼성생명)(18 : 50·SBS스포츠)

국민공인중개사
☎ 011-635-7939, 010-2810-6103
(두산동 두류도서관가게로 특별이동 2층)

대승공인중개사
☎ 062)954-7700, 010-9468-7959
토지구합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·임대전문

正心 正視 正行
명당 공인중개사 062)431-2834. (H.P) 010-6460-2834
추천 물건 토지매매

상무랜드공인중개사
☎(FAX)383-5221 ☎011-608-5221 (구 상무대 정문)
▶빌딩(임대용, 투자용) ▶토지

다우공인중개사
☎523-8114 ☎011-603-1308 (용봉지구 현대차 터기리)
▶용봉지구 상가건물(신축) ▶용봉지구 상가건물(신축)

대인동삼일부동산
☎(02-110-5210, 5210) ☎02-2522-0300
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
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.